

성도의 교제 |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알림

1. 오늘 실만한물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복음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2. 2024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잃은 양 찾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실천사항 1: 잃은 양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실천사항 2: 잃은 양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3. 매주 토요일 전도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 식품/갤러리아 앞)

4. 새벽 예배는 화, 수, 금요일에 드리집니다(레위기 강해).

5. 손금미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 드립니다.

6. 꿈나무 선교회 롱렉 미션: 7/10(수)-16(화). 함께 기도와 후원 부탁 드립니다.

7. 성찬 안내: 2024년 6월 9일 주일 예배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8. 빌립보서 1장 27a 절 (2024년 6월 성경 암송 구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9. 실만한 물가 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Cheque Pay to: The Refreshing Church

E-Transfer: rwgchurch@outlook.com

실만한물가교회 연락처

E-mail: rwgchurch@outlook.com

Homepage: rwgchurch.ca

Tel.: 647-989-2546

Address: 2630 Inlake Court, Mississauga, ON L5N 2A7

실만한 물가 교회 QR Code Scan

홈페이지



YouTube 채널



목요성경공부



카카오채널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만한물가교회
The Refreshing Watered Garden Church

주일 예배

오후 1:30

인도: 김윤규 목사

목도 Choral Prelude

다함께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찬송 Hymn

24 장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49. 시편 108 편

다함께

찬양과 경배 Praise and Worship

찬 289 장 / 찬 286 장

다함께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봉헌 및 기도 Offering & Prayer

216 장 (통 356)

김윤규 목사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빌립보서(Philippians) 1:9-11(p. 318)

인도자

설교 Sermon

김윤규 목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

The fruit of righteousness through Jesus Christ

*찬 송 Hymn

288 장 (통 204)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김윤규 목사

*는 일어섭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교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빌 1: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 세기의 네 가지 사랑의 개념

- (1)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2) 친구 간의 우정 필리아; (1 과 2 는 서로 공존함)
- (3) 가족간의 사랑 스토르계; (4) 연인간의 사랑 에로스

(롬 5: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롬 5: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시 23: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시 23: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시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빌 1: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빌 1: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두 가지 목적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깨끗하고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엡 2: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엡 2: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른 봄이 되면 집 앞 화분에 채소를 심기 위해서 한국 마켓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모종을 구입합니다. 올해도 모종이 나오자마자 가장 좋아 보이는 고추와 가지 그리고 깻잎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유독 오이 고추가 자라지 않습니다. 심지어 잎이 노랗게 말라가면서 광합성을 해야 하는 잎마저 떨어집니다. 오이 고추 모종에 무슨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래도 모종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한 주의 시간이 더 지나자 몇 장 남지 않은 잎은 완전히 떨어지고 모종의 줄기만 남았습니다.

몇 년 동안 화분에 채소를 키우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서 당황스럽습니다. 동일한 흙에 동일한 천연 거름을 사용해서 모종을 심었는데 오이 고추에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종 하나를 뽑아 확인해 보니 기존의 모종의 뿌리는 하나도 자라지 않았는데 새로운 뿌리 하나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모종을 화분에 심어 주고 조금 더 기다림을 선택했더니 모종의 줄기에 파란 싹 하나가 올라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실만한 물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동일한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요즘 이민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목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시작하는 교회로서 기다림보다 성급함이 있습니다. 마치 화분 안의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목사 농사꾼이 기다림을 선택하지 않고 모종을 화분에서 뽑아 뿌리를 확인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만일 목사 농사꾼이 매일 모종을 뽑아 뿌리를 확인한다고 하면 어떻게 모종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면서 성도들을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마음 속에 교회가 빠르게 성장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해 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올해 심어 놓은 오이 고추의 모종에 문제가 있어서 잎이 떨어지고 줄기만 남았지만, 땅 속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줄기에 보내 새싹이 나온 것처럼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올해에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한 분이더라도 함께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 10: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